

#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제765호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KBA협동조합 주주총회(Dec.4 / 2018)

▲ 12월 4일(화) 조합 주주총회에서 방성덕 특감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C O N T E N T S

04 ~ 07 | 조합 건물, 협회에 매각 최종 결정

08 ~ 09 | 마리화나 소매판매 시행령 발표  
듀람 지구협회 송년회

10 ~ 12 | 온주 가을 경제동향 보고서

13 | 알버타, 술시장 경쟁놓고 온주 비난

14 ~ 16 | 임페리얼 베이핑 제품 계약 최종 합의

17 | 협동조합 쇼핑 주문 서비스 정착

18 | 본부협회, 온주 재무부 면담

19 | 주울(Juul)의 캐나다 상륙작전

20 | 마리화나 소매업 신청 수수료 발표

21 | 몬델레즈, 그린피스의 주적(主敵)으로 곤욕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 파티

22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3 | Directory

# 조합 건물, 협회에 매각 최종 결정

12월 4일 조합 주총 의결로 大尾 완결

정관 개정 “보통주 100불 → 1불 시대로 복귀”

협동조합 소유인 웨스트몰 건물(169 The West Mall, Etobicoke)이 마침내 협회에 매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2월 4일 (화) 열린 협동조합 연차 주주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유효투표 70표 중 찬성 45표, 반대 25표로 넉넉한 지지를 받으며 (64.3%) 매각안이 통과됐다.



▲ 2018년 조합 주주총회는 정관 개정, 건물 매각 등 조합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안건들을 큰 지지로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서 잠시 조합 건물의 협회 매입이 결정된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협회 소유의 모바일 건물 매각으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4월 무렵 모바일 건물 매입을 타진하는 입찰이 전문 부동산 중개 회사들로부터 들어왔다. 최초의 매입 희망가는 340만 달러였다. 협회의 3개월에 걸친 지리한 밀고당기기 전략이 인내력있게 추진됐고 가격은 최종 430만 달러로 낙찰됐다. 거의 100만 달러를 올린 셈이다. 이미 모바일 건물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개보수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해 이 돈을 투입하며 연명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적임자를 만난 김에 팔자고 결정됐던 것인데 이 또한 특별위원회가 동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조합측 의견도 수렴했다. 그리고 협회 내부적으로 이사회와 임시총회까지 열어 결정한 사안이었다. 소유권 이

전은 같은 해 12월 11일이었으며 이로써 협회의 모바일 시대는 법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조합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새 소유주로부터 무료 8개월 매각임차 (leaseback) 조건까지 얻었으며 그 8개월이 지난 8월 말에 종료됐다. 8개월 동안의 여유 시간을 얻은 것은 조합뿐 아니라 협회도 마찬가지였다. 협회는 매

각 대금을 가지고 신규 건물을 매입해야 했다.

신규 건물 매입의 우선 고려 조건은 조합의 모바일 매장 대체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조합의 도매상 기능이 이어가 조합원 또는 회원들의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목표였다. 그런데 팔기도 힘들었지만 새 건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역시 건물매입 특위를 구성해 물망에 오른 후보지를 실사도 해보고 여러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조건들이 맞지 않았다. 욕심이 나도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가격을 그런대로 맞추겠다 싶으면 접근성이나 이용도에서 그다지 실익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모바일 8개월 임차 기간은 서서히 만료시점에 다가서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 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고 있었고 웨스트몰 1개 매장 체제를 상정하고 경영분석을 다각도로 해 본 결과 협회에 조합 건물을 매각하지는 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 협회 신재균 회장은 여러 루트를 거쳐 조합 건물 매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협회와 조합의 일체감도 살리고 조합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리 차원에서 매각의 당위성을 역설한 결과 이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6월 5일 3차 정기이사회 전체 투표 26표 중 23표 득함) 남은 절차는 조합측의 지지였으며 조합 운영이사회도 몇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고 지난 10월 월례 이사회에서 협회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최종 의결은 12월의 주주총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도록 한 것인데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마침내 통과됨으로 인해 앞으로 조합과 협회 사이에 적정 매매가를 정하고 법적 절차(매매계약 및 세금 관계 등)를 밟는 후속 작업만 남게 됐다.

이날 건물 매각과 관련해 회의장은 난상토론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매각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매각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충분한 배경 설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세가 기울었음을 자인하는 듯 특별결의 (2/3이상 찬성)로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실험회장이 조합 운영이사장의 상황(上王)노릇으로 관철시킨 작품이라는 비유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박 발언도 만만치 않았다. 매각의 당위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발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으며 그간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빨리 투표나 하라는 성화

성 질책이 쏟아졌다. 상황, 사주 운운하는 표현들이 인신공격이자 심각한 명예실추 발언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신영하 운영이사장의 힘겨운 진행과 신재균 실험회장의 보충 설명이 추가되면서 간신히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매각 반대 진영에서 '이해상충'을 거론하며 이해당사자들은 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질의를 예상한 신재균 회장이 영리기관인 협동조합의 관련법에서는 이해상충의 개념이 단순히 직위를 겸한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로 인해 결의되는 사항이 사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안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이견을 잠재웠다.

조합 건물 평가액이 은행융자 등을 제외하면 전체 자산의 본질적인 구성비율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과반수만 득하면 되며 더 나아가 운영이사회 의결만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조합원의 정서를 고려해 의결사안으로 상정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신 회장은 이같은 설명에 덧붙여 관련법을 해석한 판례를 뒷받침 자료로 인용했다. 판례는 '본질적인 자산의 비중(건물)을 전체 자산의 75%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조합 건물은 전체 자산의 42%에 불과하다.

매각 찬반의 진영 논리 공방전은 결국 무기명 비밀 투표로 판가름이 났다. 조합측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웨스트몰 건물은 약 650만 달러이며 실험에서 단기 자금으로 변동해준 25만 달러를 포함해 조합의 용자액은 대략 300만 달러에 이른다. 신영하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가 기준에 맞춰 매매가 이뤄지면 정부에 낼 세금이 75만 달러 정도로 추산

**2018 제 10회 TouchCash Inc. ATM & POS 장학생 명단**

그동안 한인 사회의 격려와 지원으로 이렇게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깁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한인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자유로운 꿈을 꾸고 더 나아가 한인 사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TouchCash Inc. ATM & POS는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Chapter / KBA	Applicant Information			Parent Information	
	Name	University / Collage	Faculty	Name	Business name
Etobicoke	Esther Kim	Wilfrid Laurier University	Arts	Chang Su Kim	Mother's Bakery & Deli
Newmarket	Han-Wool Na	Ryerson University	Community Service	Ha Il Na	Country Mart
North York	Joo Young Kim	OCAD University	Industrial Design	Kyung Hee Kim	Sheppard Convenience
Peel	Erin Lee	University of Ottawa	Accounting	Seung Il Lee	Light Variety
Scarborough	Min Jae Song	Fashawe College	Health Science	Myeong Hyeon Song	Parkway Variety
Toronto East	Haeun Song	University of Toronto	Nursing	Kwang Ho Song	Select Fine Food
Toronto West	Soyeon Stephanie Kim	University of Waterloo	Arts-Accounting & Financial Mar	Chunghwae Kim	Splash Splash Conv.
Weston / York	Thomas Hanbyul Lee	University of Waterloo	Mathmetics	Joon Kyu Lee	Belmont Super Variety
Brant County	Jun Hwan Yu	Mohawk College	Fennell Campus	Hyung Ok Kim	A & J Variety
Halton & Hamilton1	Hyun Ji Hwang	Queens University	Chemical Engineering	Jin Ah Chung	Westoak Convenience
Halton & Hamilton2	Michael Min-Jae Lee	McMaster University	Engineering	Sung-Woong Lee	Gore Gift & Variety
London 1	Dong-Sue (Sue) Cha	McMaster University	Lif: Science	Jinyoung Cha	Mini Mart
London 2	Dennis Lee	Sutherland-Chan School of M	Physiotherapist/ Rehabilitation	Jungsun Lee	Bryan's Variety
Niagara Falls	Hyunsung Shin	Wilfrid Laurier University	Music	Seung Hoon Shin	Garrison Mart
Waterloo	Soomin Lee	York University	Faculty of Health	Dongkee Lee	Union Mini Mart
Durham	Janine Yang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Nursing Program	Chang Soo Yang	C & H Variety
Huron	Million Yun	Georgian College	Police Study	Seung Won Yun	Grace Centre
Kingston	Christina Y. Baik	Mvgill University	Desautels Faculty of Managemen	Seungdae Baik	Hastings C-Store
Owensound	Minchan Han	University of Waterloo	Mathmetics	Jooyun Han	Jet Variety
Peterborough	Sunny Choi	Weston University	Kinesiology	Young Re Choi	Mr. Convenience
Sudbury	Jaeun Kim	McMaster University	Science	Seung Kyum Kim	Tony's Variety & Video
Manitoba 1	SU Keoung Kwon	University of Manitoba	Science	Oh Sang Kwon	Young Food Mart
Manitoba 2	Keun Ho Jo	University of Manitoba	Kinesiology	Si Hyung Jo	Queen Sunny Food
Edmonton	William Lee	Thorhild Central School	Secondary School	Myung Soo Lee	Radway Husky
Halifax	Ji-Ho Park	Dalhousie University	Civil Engineering	Kyun-Woo Park	John's Trading



**TouchCash** ATM POS

820 Denison St. Unit 3 Markham, Ontario L3R 5M9  
 Tel : 905-513-8843 Fax : 905-513-0919  
 Toll Free : 1-866-391-3950

된다. 그러나 용인될 수 있는 한도로 시가보다 낮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약 25만 달러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 이사장은 협회이기때문에 헐값에 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다소 낮은 금액에 체결된다 하더라도 저렴한 렌트비를 비롯한 여러 혜택을 누리는 조건을 구비하는 등 보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부터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양쪽 리더인 두 신씨가 절세를 비롯한 상호 윈윈의 가장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 정관 개정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10월 협회 정기 총회에서도 정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와 조합 정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비롯해 본질적인 규정에 대해 손질이 있었다. 핵심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보통주 주당 \$100	\$1
조합원 자격 조건의 하나로 연 3회 쇼핑	최소 2년 내 1회 이상 쇼핑
임총 소집 요건 : 조합원 30% 이상 발의	5% 이상 발의, 30일 이내 임총 개최 의무
이사수 주총 직선 12인 + 협회 파견이사 6인 = 18인	주총 직선 4인 + 협회 파견이사 4인 = 8인
감사 3인	2인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을 비롯한 모든 서류는 영업 시간 중에 이사들에게 항상 열람 가능</li> <li>조합 회계장부, 이사인준사항, 회의록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영업 시간 중에 조합원이나 채권자에게 열람 가능</li> </ul>

개정안 내용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들이다. 우선 현재와 같이 보통주가 1달러에서 100달러로 무려 100배가 났다는 것은 지난 2010년 협회 강철 중 회장 당시, 조합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치달을 때 협회와 선을 긋기 위한 방책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이 있었다. 불가피한 시대적 여건이 해소된 마당에 계속 이 조항으로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조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조합원의 세력화와 조합 운영의 전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2010년 이전의 보통주 1불 시대로 복귀해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 3회 쇼핑 의무화도 걸림돌이었다. 외곽의 경우 1년에 3회 쇼핑하기도 힘든 현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며 쇼핑 횟수가 본질적인 자격 유지의 요소도 아니다. 불필요한 구속을 상징적인 조건 정도로만 대폭 완화하는 취지다.

다음으로는 실험처럼 조합도 군살을 대폭 빼자는 구조조정 문제인데 현재의 이사수 18인이 8인으로 대폭감원된다. 실험도 부회장과 부이사장 2인을 1인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도 해야 하려니와 주총 직선 이사 12인도 불필요하게 많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상정된 원안은 주총 직선 이사수를 6인으로 하고 협회파견 회장


단/이사장단 4인을 포함해 10인이었으나 직선 이사 수를 4인으로 더 줄이자는 제안이 나와 거수표결에 부쳐 통과시킴으로 인해 8인이 된 것이다. 신영하 이사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남은 직선 이사수가 꼭 4명이고 협회 자동이사 4명을 합하면 개정 정관에 부합하는 8인이 되기 때문에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출은 자동 생략됐다. 감사 3인은 2인으로 1명 축소됐으며 추천에 의해 거수표결에 부친 결과 장해민, 백사열 두 조합원이 1년 임기의 감사로 선출됐다.

전체 정관 개정안은 재석 8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통과된 날인 12월 4일부터 발효가 된다. 참고로 조합 정관은 개정 의결 정족수가 2/3이며 이 조건이 충족됐다.

### 특별감사 보고

한편 이날 주총은 앞 순서에서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했던 특감 최종 결과보고가 있었다. 방성덕 특감위원장이 파워포인트를 통한 세부 자료를 동원하면서 30분간 보고를 했는데 주요 골자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외상매출금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누계 약 26만 달러
- 2014~2017년 매출 평균 마진률 약 14%에 손실률은 5% 육박하며 연평균 80만 달러 이상의 손실 발생.
-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구매물품 입고 및 재고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진전이 거의 없음
- 재고 조사 자료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담배 재고는 조작, 기타 재고는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세부 내역 미비 또는 누락)**

- 직원 휴가 수당 미지급 수년 누계 7만 달러 이상에 퇴임한 전임 전무 휴가 수당은 초과 지급하는 등 위법과 방만한 관리 업무

-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 구입 다수

- 소액현금(petty cash)으로 처리한 비용이 최근 연간 8만 달러 이상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지급 사례까지 있을 뿐 아니라 지출 명세서의 상세 기술이 없음.

- 회외비 항목의 부적절한 용도 지출 (운영이사 5~7명 수준으로 감원 요망)

- 주주 명부 작성 및 관리를 비롯한 일반 행정서류 및 회계 서류 관리 불철저와 해이한 업무 기강

이상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특감 보고 내용이며 지난 11월 20일 열린 운영이사회에서는 특감 보고서를 최종 완료하기에 앞서 전직 운영이사장과 전직 전무의 소명 기회를 가진 바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공공 유용에 관한 지적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관례와 체면을 고려한 행위였음을 깊이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자료나 재고 관리의 불철저도 인정하면서 과감한 인력 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조합측은 전임 운영이사장에게는 약 25,500달러, 전임 전무에게는 약 53,000달러의 반환금을 요구한 상태다. 반환 시한은 금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임 운영이사장의 경우, 지난 11월 조합 임시 운영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

**기타**

웨스트몰 1개 매장으로 전환한 뒤 조합 직원은 현재 18명(매장 12명 + 사무실 6명)이다. 2017/2018 회계연도 총 매출은 약 2,250만 달러이며 이중 순수한 일반담배 매출은 440여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8/2019회계연도 예산은 매출 목표가 약 1,900만 달러에 원가구입비를 포함한 총 지출은 약 1,710만 달러로 예상됐다. 수지측면에서는 수입이 206만 달러에 지출은 171만 달러로 순익이 약 35만 달러로 책정됐다. 올해부터 조합 외부감사는 처음으로 협회 외부감사 이방록 회계법인이 동시에 맡게 됐으며 첫 외부감사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조합 총 자산은 약 5백만 달러이며 이중 유동자산이 채고 223만 달러를 포함해 263만 달러, 고정자산은(주로 건물)240만 달러이다. 주로 은행융자와 모기지 등을 주축으로 한 부채는 총 400여만 달러이다. 보고서는 서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서 재고와 관련해 조합의 재고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자료를 해독해줄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향후 조합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상이 12월 4일 개최한 조합 주주총회의 주요 결의 및 보고사항들이다.

협회에 이어 조합도 군살 빼기를 단행했으며 양쪽 모두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건물 매매에 대한 회원과 조합원으로부터의 압도적 지지도 얻었다. 남은 과제는 두 리더들과 임.직원의 단합된 자세이며 협회 신뢰도가 이날 인사말에서 강조했던 바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협회와 조합의 자산은 두 조직의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인커뮤니티 전체의 공적 자산으로 한인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행**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를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Credit Card**

Business Type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Qual
Convenience Store	1.40%	No Charge	0.1%	0.3%
Other Type of Business	1.40%	No Charge	0.1%	0.3%

**Debit Card**

Business Type	Chip & Swipe	Tap & Flash
Convenience Store	3.65 cent	5.65 cent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	7.15 cent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 허가 신청, 편의점 결코 쉽지 않아

# 마리화나 소매판매 시행령 발표



▲ 마리화나 소매업소 판매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는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

편의점 업계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민영 소매 채널 대상 범위 관련한 온주 정부 발표가 고대되던 중 지난 11월 14일(수) 캐롤라이나 멀루니 법무장관을 통해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 나왔다. 전체 내용과 추가 정보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즉시 실행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엔 발표된 시행안을 먼저 소개한다. (웹사이트에는 이미 소개) 이하 '기호용 마리화나 민영 소매업소'(private cannabis stores)를 '업소'라고 칭한다.

- 업소의 위치는 학교로부터 최소 15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약 500피트)
- 한 업체가 개장할 수 있는 최대 매장 수는 75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함이다.

- 19세 미만의 손님이 업소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마리화나와 관련한 범죄 전과를 비롯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될 것이다. 특히, 연방 차원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효력을 발한 2018년 10월 17일 이후에 불법으로 마리화나 영업을 한 경우는 영업허가가 불허될 것이다.
- 조직 범죄와의 연계성이 있는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는 영업허가 발급이 거부될 것이다.
- 영업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법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업주, 매니저 또는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마리화나 판매 취급에 관련된 자는 예외없이 공인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마리화나 취급에 책임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업소는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 업소의 마리화나 판매와 취급은 주무 관청인 '온타리오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하에 운영될 것이며 특히 미성년자에 판매한 업소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영업 시간은 어느날을 예외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이상이 이번 발표의 골자이며 동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 온주 정부는 산하 지자체, 원주민 커뮤니티, 사법당국, 보건단체, 일련의 사업체 및 소비자 단체 그리고 타 주 관계자들까지 아울러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예상대로라면 영업허가 신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AGCO에 제출이



## Welcome to the Ontario Cannabis Store

Ontario's only legal place to buy recreational cannabis on October 17.

We're here to help you make informed choices if you choose to consume cannabis.



▲ 온주정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마리화나 구입 채널 OCS의 웹사이트 화면. 주소는 <http://ocs.ca>이다.

시작될 것이며 영업 오픈은 내년 4월 1일이다. 참고로 정부가 직영하는 온라인 판매는 사진에서 보듯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OCSA는 일단 영업 초기 단계에서 편의점은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허가받은 전문 업소들이 편의점 품목 예를 들어 복권과 같은 핵심 품목들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조치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업소의 외형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 형태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 편의점 한켠에 전용 공간을 대충 마련해놓고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19세 미만의 손님이 편의점에서 다른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눈에

띄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편의점을 완전히 벽을 쳐 분리하고 출입구를 별도로 해서 편의점 손님과 마리화나 손님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리 쉽지가 않게 됐다. 본부협회는 이런 사실 등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입수되면 즉각 회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

## 듀람 지구협회 송년회



2018년 송년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후 6시

● 장소 : Club Lorely

389 Dean Ave, Oshawa, Ontario, L1H3E1

● 연락처 : 이현식 회장 (905) 579 - 2500

\*참석 여부를 12월 1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품이나 후원금 지원을 적극 환영합니다.

듀람 지구협회장 이현식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etd@gmail.com](mailto:onetradingle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 온주 가을 경제동향

보고서

조성준 장관, 동포언론 기자간담회 통해 세부설명



▲ 지난 11월 15일 퀸즈파크 의사당에서 빅 피렐리 재무 장관의 가을경제동향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사진은 장관이 더그 포드 수상(왼쪽 두번째)을 포함해 동료 장관 및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새로 들어선 온주 보수당 정권의 가을경제동향보고서(FES ; Fall Economic Statement)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됐다. 공식 명칭은 '2018 Ontario Economic Outlook and Fiscal Review'이며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예고편 성격의 중간 보고서로 약칭해서 'FES' 라고 부른다. 이번 보고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때 보고서보다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 후 편의점과 관련한 주목할 대목들을 별도로 요약 정리한다.

## ■ 보고서 핵심 사항

### ●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인 빌 148(Bill 148)을 폐지했다. 빌 148은 노동관련 각종 법률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전임 자유당 정부때 입법화돼 스몰비즈니스에 특히 타격을 가하게 돼 업계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었다. 특히 '공정한 일터, 더 나은 직장'에 관한 법률(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이 법의 명칭과는 달리 가장 큰 문제였다.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을 우선시하는 보수당 정권이기에 이미 지난 10월 23일 소관 주무 장관을 통해 문제의 법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몬트리올에 소재하는 명망있는 비영리 경제 연구소인 MEI(Montreal Economic Institut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1.60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한 여파로 온타리오내 청소년(14~25세)일자리 56,000개가 사라졌고 식당 음식값이 평균 5.6%가 올랐다고 한다. 이는 굳이 전문기관의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인들이 평소 자주 다니는 한식당에서 간단한 음식 하나만 시켜보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실감하고 있다.

모두들 더 싸다고 말하지만  
**“진짜 착한가격은 78 Trading”**



Water Pipes



Glass Pipes



Vaporizers



Grinders



Rolling Papers



Scales

이외에도 다양한 스모킹 제품 및 잡화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Hours**

Monday-Friday  
9:00AM-5:00PM

Saturday  
9:00AM-1:00PM

Sunday  
Appointment



**78 Trading**

528 McNicoll Ave. North York M2H 2E1  
 www.78trading.co | contact@78trading.co

**437-777-7878**

**78trading**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빌 148의 내용 중 하나였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 온주에서 5만개의 인력 고용이 사라졌고 8월에 이르면 8만개가 없어졌다. 대부분이 비상근직이었다.

내년에는 15달러로 재차 오를 계획이었으나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며 이와 오른 14달러는 향후 수년간 동결한다는 방침이라 편의점과 같은 소자영업주들의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보수당 정부는 또,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온타리오에는 비즈니스 관련한 이런저런 법령이 약 38만개가 있다.

이는 B.C주의 두배가 되는 수준인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폐지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확충

보수당 정부의 선거 공약 이행의 하나인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미 6천개의 장기 요양원 침상이 확충됐고 시급을 다투는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9천개 침상이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독감 시즌을 맞아 9천만 달러를 들여 병원에 1,100개 침상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 ●빛줄이는 정부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왔다고 전임 자유당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보수당 정부는 정권 인수인계 시에는 믿겨라하고 넘어갔으나 실상을 파악해보니 150억 달러라는 빛을 안은 정부를 넘겨받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온주 정부의 누적 부채는 총 3,470억 달러이며 이자만 매월 10억 달러,

연간으로 125억 달러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심각한 재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새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일단 집권 5개월이 지나면서 320억 달러의 예비 예산을 조성했고 270억 달러는 세금 감면으로 온주 주민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저소득층 혜택 확대

최저임금 근로자 또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주정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일명 '저소득 가정 세금감면 혜택(LIFT ; 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년간 주정부가 도입한 감세 제도 중 가장 과격적이며 약 110여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온주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임대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계획안'이 곧 시행될 것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 ●탄소세 폐지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가 폐지돼 난방비 부담이 감소됐다. 유류가격은 리터 당 4센트 하락됐다. 일반 가정은 광열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개스, 난방비를 연간 평균 약 260달러 절약할 수 있다. 전임 자유당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3억 800만 달러 세금 인상은 백지화했다.

FEEL THE NICOTINE RUSH

# STIG

DISPOSABLE POD DEVICE

**FULLY CHARGED**  
OUT OF THE BOX

---

**1.2 ML**  
SALTNIC LIQUID  
PER STIG

---

**6.0%**  
NICOTINE  
BY VOLUME

---

**20**  
CIGARETTES  
APPROXIMATELY





Fresh Cool Mint



Juicy Sweet Mango



Rich Creamy Cigar



Iced Watermelon

도매문의 : 416.419.3751

\*판매 세일즈하실 분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간편한 최첨단 일회용 전자담배

연방 정부의 스몰비즈 니스에 대한 세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온주의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연간 4만 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 편의점 관련 사항

### ● 불법담배 대응책 강화

불법(탈세)담배의 만연은 온주 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불공정한 사업 풍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온주 주민의 보건과 공공안녕을 위태롭게 한다.

기업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 언스트앤영(Ernst & Young)캐나다의 추산에 의하면 불법 담배로 인한 주정부 세수 손실은 연간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 온주 재무부는 주민계몽 캠페인을 벌여 주민들이 불법담배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불법담배 시장에 연루되는 것이 어떤 결과와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한다. 재무부는 또한 담배 관련 세법과 이의 집행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불법담배 시장의 규모를 축소 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사법당국 및 원주민과의 새로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온주경찰청(OPP)내의 불법담배 전담팀인 CIET(Contraband Tobacco Enforcement Team)는 불법 담배와 조직범죄의 연관성 파악에 주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난 여름에 인력을 확충했으며 앞으로 현 인력의 두 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한 불법담배 단속을 위해 경찰에 일종의 보조금(grant)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데 불법담배 단속을 더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 및 지자체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퀘벡주가 불법담배 거래 유통에 이용된 차량의 몰수 처분권을 경찰에 부여해 단속업무의 활성화와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로 주내 불법담배 소비율을 격감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온주 보수당 정부가 이와 유사한 모종의 정책을 도입하려는 계획임.)

더 나아가 전임 자유당 정부에서 매년 카튼 당 4달러씩 담뱃세를 인상해오던 정책을 중단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담뱃세 인상은 없다.

### ● 전기료 감액

가스료, 난방비 이외에도 중요한 광열비의 하나인 전기료를 약 12% 감액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전기료는 편의점 입장에서 냉장, 냉동 설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또는 감액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유당 정권 시절 전기료는 폭발적으로 올라 협회에서 벌였던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 5대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혔던 주제이기도 했다.

### ● 주류 유통 시스템 현대화

현행 주류 시스템의 현대화는 보수당의 소비자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으뜸 과제 중 하나이다.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정리된다.

- 비어스토어(Beer Store), LCBO 및 LCBO대행판매업소(Agency) 그리고 맥주와 와인에 한해 취급을 허가받은 식품점 등은 판매 영업시간을 36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한마디로 영업시간 연장인데 이는 술을 사러다가 영업시간이 짧아- 특히 주말- 술을 구입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험들을 다반사로 겪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점에서 소비



▲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가을경제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 장관. 협회 차동훈 전무가 보수당의 편의점 친화 정책과 조 장관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자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맥주와 와인 취급에 있어서는 편의점에도 시장 수요에 기초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식품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도 물론 포함된다. 결코 정부의 독단적 조치로 허가 여부를 정할 사안이 아니다.

- 주류 판매와 관련된 규정 수립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업계, 여타 유관 그룹들의 입장과 견해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 내용과 편의점 입장에서 주목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한편, 발표가 나온 수일 후인 지난 11월 20일(화)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은 동포사회에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동포언론 간담회를 열어 세부 내용들을 홍보했다. 장관은 스카보로의 한 한식당에서 20여 명 가까운 인쇄 및 방송 매체 기자와 협회 직원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겸한 보고서 브리핑을 가졌고 보좌관의 보충 설명을 곁들였다. 조 장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인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공을 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다.

협회 차동훈 전무는 장관의 설명을 주의깊게 메모하며 경청한 끝에 질의 시간에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협회가 전개했던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의 5대 요구사항을 새 정부가 모두 관철시킨 셈"이라며 정부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



## 알버타, 술시장 경쟁놓고 온주 비난

알버타 정부가 맥주 전쟁을 한판 벌이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열어젖히고 있

**“온주 장벽 너무 높아!”**

으며 주민들에게 국내산 3,700종의 주류를 유통시켜 최대의 선택폭을 제공하고 있다. 온타리오산 제품도 745종이나 취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11월 26일 에드먼튼의 한 맥주 양조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델트 빌리어스 경제개발부 장관이 언급한 대목이다. 장관은 “온타리오가 국내 최대의 주류 시장으로 알버타보다 3배나 규모가 큰데도 온타리오에서 우리 알버타산 주류는 고작 20종밖에 발견할 수 없다.”며 양쪽의 심각한 불균형을 강력히 지적했다.

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대는 온타리오주이며 여러 다른 주 중에서 온타리오주를 선택한 것은 이곳 맥주 시장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균침도는 온타리오가 알버타산 맥주와 여타 알콜 함유 제품들에 불공정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쌓고 진입을 막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참고로 무역이라 함은 국가와 국가간의 장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처럼 방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많은 주(州)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별로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주와의 상거래에서 독자적인 상법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의 주간(州間) 거래도 무역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 11월 26일에 비롯됐다. 이날 알버타 정부는 역내 로컬 맥주 제조업체들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의 전면 폐지를 발표했는데 보조금 지원이 위헌(違憲)이라는 지난 봄의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알버타는 국내에서 가장 개방적인 주류정책을 취하고 있

으며 주민들에게 국내산 3,700종의 주류를 유통시켜 최대의 선택폭을 제공하고 있다. 온타리오산 제품도 745종이나 취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11월 26일 에드먼튼의 한 맥주 양조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델트 빌리어스 경제개발부 장관이 언급한 대목이다. 장관은 “온타리오가 국내 최대의 주류 시장으로 알버타보다 3배나 규모가 큰데도 온타리오에서 우리 알버타산 주류는 고작 20종밖에 발견할 수 없다.”며 양쪽의 심각한 불균형을 강력히 지적했다.

빌리어스 장관은 온타리오 정부에 서신을 통해서 불균형 관행에 대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주류 전쟁을 예고했는데 그간 온타리오 자체 로컬 맥주 유통에도 인색한 온주 정부가 다른 주의 로컬 주류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지 관심이 가며 특히 정권이 보수당으로 바뀐 때문에 직전 자유당과는 다른 전향적 정책을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알버타 장관이 지적한 불공정 관행의 하나를 보면 온주는 타주 맥주에 대해 한 종류 당 1,600 달러 어치가 수입될 때마다 성분과 품질 평가 명목으로 400달러를 부과한다고 한다. 장관은 알버타 맥주를 도교에 판매하는 것보다 토론토에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렵고 한국에도 판매가 가능한데 국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이 아주 크다. 양 주정부 간의 논의 진행 마감시한은 120일이 주어졌다. ■



## 신상품! 고단백 울트라필터 우유

- ✓ 울트라필터 우유 :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영양소가 한잔에 가득
  - 일반 우유보다 75% 더 많은 단백질
  - 일반 우유보다 25% 더 적은 양의 유당(당분)
- ✓ 신선하고 깔끔한 맛과 향
- ✓ 실온에서 120일간 신선도 유지
- ✓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용기
- ✓ 밀봉뚜껑으로 신선도 최대 유지
- ✓ 시장 선도 님슨 제품
- ✓ 순수 캐나다 자원으로 생산, 판매되는 신선한 우유



저설탕, 고단백  
우유로 보다  
활력있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 임페리얼 베이핑 제품 계약 최종 합의

회사측 “선택은 자유이나 협회 특별배려 주목해야”



최근 수주간 임페리얼사의 일반 담배 및 베이핑 제품을 둘러싼 회사측의 계약서 버



전이 여러 종류 나돌며 회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왔던 상황과 관련해 지난 11월 29일 최종 확정된 실상을 소개한다. 일반 담배와 관련한 사항에서 독소조항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임페리얼 담배만을 취급해야 한다는다는 배타적 영업은 회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기존 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본 계약(Trading Terms and Conditions for Retail Customers)의 최근 개정 계약본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세대제품(NGP; New Generation Products) 취급 의무화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임페리얼의 간판급 차세대 제품 베이핑 브랜드 'Vype' 상품 취급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동 제품 취급 제한을 무조건 거절할 근거는 없다. 다만 회사측도 본 계약을 근거로 모든 회원 업소에 일괄적인 강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조화로운 접근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간 극히 일부 회원 업소나 회사측 직원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인한 대립이 빚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매끄럽지 못한 대목이 있었으나 본부협회는 임페리얼측과 신속하고도 심도있는 접촉 및 대화를 통해 회사측의 진의와 베이핑 제품 사업 추진의 실체를 파악했으며 상호 유효성을 발휘하기로 정리를 했다. 서로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끝에 도달한 양측의 결론을 이하 소개하니 정독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충돌이 재발하지 않기를 요망한다.



## ● VYPE제품 취급은 회원의 선택사항이다.

VYPE제품은 동 제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비록 본 계약상으로 보면 취급을 거절할 명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굳이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측도 강제성을 발동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선택사항임을 상호 양해했다.

단, 이해득실의 판단에 도움이 될 팩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캐나다 흡연인구가 약 450만 명이다. 이 중 베이프 제품과 일반 담배를 과도기적으로 혼용하거나 베이프 제품으로 교체한 흡연자가 총 150여 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흡연자의 33% 수준이다.

또 한가지 유념할 팩트로는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흡연 인구는 전체적으



▲ BAT의 차세대 베이핑 제품인 VYPE. 아래 사진은 소매업소에 무료 제공될 제품보관함의 여러 형태들.

로 감소하지만 소비되는 니코틴 양은 증가하는 기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담배 흡연은 절제하면서도 니코틴 욕구는 여전히 있다는 반증으로 일반 담배의 대체품에 대한 선택의 수요가 증가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간단히 말해 멀지 않은 장래에 일반 담배에서 대체물로의 베이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열악한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효자노릇을 해줄 매력적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 임페리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의 매력적인 베이핑 제품인 VYPE 취급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VYPE는 베이핑 제품 중에서도 임페리얼이 강조하듯 이 분야의 차세대 제품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일종이다. 모회사인 영국의 BAT에서 이미 2013년에 최초 출시했고 이후 시리즈로 신제품이 추가 개발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후 BAT는 쥘련형 전자담배 - 소위 말하는 가열은 하지만 타지는 않는 HNB(heat-not-bum) 담배인 글로(glo)라는 제품도 출시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나름 실적을 거뒀으나 이 제품이 북미주 시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VYPE 신제품 시리즈로 북미주 시장 공략을 준비했으며 임페리얼을 통해 동 제품의 캐나다 시장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 협회 회원업소를 위한 특별한 공급 조건을 시행한다.(\*대외비)

본부협회의 의견을 두루 참작해 임페리얼 본사 차원에서 자체 숙의 끝에 협회 회원만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는 융통성을 보이기로 했다. 물량 공

급 및 대금 결제 조건에서 상당히 완화된 정책을 제공한다. (\* 회사측은 경쟁 관계의 비한인 업소에는 회원들이 각별히 대외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 바 회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하 표로 정리한다.

공급시점	제품 내역	대금	결제일
1차 물량 2018.12.17	ePEN 3 Starter Kit - 10 Devices&13 Skus x 1 carton of 6 each	\$1,069	배달즉시 (연후로 인해 불가피)
2차 물량 2019. 1. 2	ePOD Starter Kit - 7 Devices&3 skus x 1 carton each	\$ 523	1월 15일 (2주 결제 여유 배려)
3차 물량 2019. 2. 1	eTANK Pro 2 Starter Kit - 8 Devices&14 eLiquid Skus x 1 carton of 6 each eSTICK - 5 Devices&2 Skus x 1 carton of 10 each	\$ 993	2월 15일 (2주 결제 여유 배려)

표에서 보듯 전체 패키지 약 2,500달러의 제품을 3회 시차를 두고 제공하고 대금도 이에 맞춰 분할 결제하는데 이것도 물량 배달 후 2주 가량 여유를 두고 인출함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최소화했다.

## ●기타 참고 사항

임페리얼측의 설명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소매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기본 마진률 15%만이 제공될 뿐이다. 그러나 실험을 포함한 모든 독립 편의점의 경우 영세성과 경쟁력 열세를 고려해 기본 마진률 15% 이외에도 계약선택(스케줄 A1, A2, A3)에 따라 추가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A2 계약을 택하면 총 마진이 30% 이기 때문에 기본 외에 15%를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달 시 15% 할인, 한달 후 나머지 15%는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일반담배처럼 소매업군마다(독립, 프랜차이즈 등)공급가 차별 정책을 쓰지 않고 동일한 가격에 제공받기 때문에 회원 업소도 프랜차이즈와 공평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Vype판매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안심하고 제품 취급을 결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보수당 신 정부가 매우 다행스럽게도 진열은 일반담배처럼 불허했지만 홍보 관측에 특별한 계약을 두지 않고 가격표, 광고 안내문을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고무적인 영업 환경이라 할 것이다. 임페리얼사는 전자 가격표와 카운터 전자광고판도 모든 원하는 업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Vype제품 보관함은 현재 회사측이 4종을 준비해놓고 업소의 공간 형편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 여러 장점들을 설명하며 임페리얼측은 초기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배려와 혜택은 이 사업의 초기 가입자와 관망 후 가입자의 차별을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가입해 줄 것을 조언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할 공급에 분할 지급의 상기 조건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된다. 회사측이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 계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기존 고 프로그램이 해지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임페리얼 베이핑 제품 취급 관련한 별개의 계약서를 번역 소개한다. 계약서는 회사측이 제공하는 보관함도 상관없이 4종의

기기 (ePen 3, ePod, eStick, eTank)와 4종의 카트리지(ePen3 Cartridge, ePod Cartridge, eStick Cartridge, eLiquids)를 취급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돼 있다.



## 〈베이핑 제품 취급 계약서〉

1.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고 용어는 기존 소매업자 계약서 (Trading Terms and Conditions for Retail Customers)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 계약서는 ITCO의 소매업자 계약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2. 업주는 스케줄 A1, A2, A3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업주가 따라야 할 조건이 달라진다. ITCO는 수시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다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

3. 어떤 스케줄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품(기기와 카트리지)에 대한 해당 할인가를 받게 된다. 우선권 프로그램(A1 ; Preferred Program), 준 우선권 프로그램(A2 ; Semi-Preferred Program) 마지막으로 기본프램 (A3 ; Base Program)으로 구분된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할인가는 회사측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회사는 해당 할인혜택을 매일 말일에 일괄지급한다.

6. 회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수정하거나 양측의 서명 요청하에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는 임의로 수정될 수 없다.

7. 본 계약서는 온타리오주의 관계법령에 준한다.





# 협동조합 쇼핑 주문 서비스 정착

협동조합이 지난 10월 12일부터 팩스를 이용한 사전 주문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조합원들의 쇼핑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전 주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주문이 해당일 오전에 이루어지면 다음날 낮 12시 이후 아무 때고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전날 오전 주문을 다음날 오전에도 수령 가능한지 궁금하면 조합에 문의하고 확인후 움직이도록 한다.

초창기에는 팩스 주문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약속했던대로 카카오톡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졌다.

팩스 주문은 416-867-9530

카카오톡 주문은 [http://pf.kakao.com/\\_pkAjj](http://pf.kakao.com/_pkAjj) ■

Sincere Trading of K.B.A

# PICKING



- K.B.A will find and pick the items you wish to purchase.
- If you order before 12 p.m You can pick up next day after 12 p.m
- You Can order by Fax or Cacao Talk.
- Fax No. : 416-867-9530
- CacaoTalk : [http://pf.kakao.com/\\_pkAjj](http://pf.kakao.com/_pkAjj)

· 팩스나 카카오톡으로 오더 주시면 물건 찾아 드립니다.

[http://pf.kakao.com/\\_pkAjj](http://pf.kakao.com/_pkAjj)

SERVICE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12월 프로그램



### 정착상담 서비스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 오리엔테이션 -각종 정부서비스 신청 및 신분증 발급  
-타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정보 제공

### 취업상담 서비스

-취업상담 및 취업 전문 기관 연계, 직업관련 정보 -이력서 작성 및 모의 취업 인터뷰 연습  
-실업급여와 근로자의 권리 관련 정보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이민자들의 학교 등록 및 무료 영어 프로그램 안내  
-진로 상담 및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연금, 장애연금 및 정부임대주택 신청 -자녀양육 보조금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무료 세금보고

### 가정상담 서비스

-개인, 그룹, 가족 상담, 심리안내  
-가족폭력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기지원  
-정부임대주택 신청 및 생활보조금 신청 -국선변호사 연계 및 가정법 법정보고 안내

### 마음에 안정을 주는 크리스마스 핸드메이드 레시피

- 일시: 12월 5, 12, 19일 (수) 총 3 회기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
-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 담당: 정착상담원 정유연
- 내용:  
1. 천연재료를 이용한 아로마 소이 캔들 만들기  
2.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한 왁스 방향제 만들기  
3. 핸드메이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재료비 포함 등록비 \$30  
\*사전등록 필수  
\*정원 15명

### 실비복지아파트(Affordable Housing)와 정부지원 임대주택

- 일시: 12월 11일 (화)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30분
- 장소: KCWA 다운타운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 내용:  
1. 정부지원 임대주택 vs 실비복지아파트란?  
2. 정부지원 임대주택 신청 자격  
3.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종류와 실비복지아파트의 위치  
4. 신청 절차  
5. 정부지원 임대주택, 실비복지아파트 신청시 유의할 점  
6. 질문과 답변

\*사전등록 필수

### 2018 커리어 네트워킹 -캐나다 공무원 되기-

- 일시: 12월 8일 (토) 오전10시 30분- 오후2시
- 장소: 노스욕 시빅센터 (5100 Yonge St. North York)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 내용: 1.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한인공무원들 한자리에 만나는 기회  
2. 공무원 분야에 대한 소개와 취업 기회 설명  
3. 초청 공무원과 참석인들의 소모임  
4. 네트워킹을 위한 노하우  
5. 질문과 답변

\*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사전등록하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 신청 안내

- 일시: 12월 6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 내용:  
1. 캐나다 정부의 시민권 정책 방향  
2. 캐나다 시민의 의미  
3. 시민권 개정안 안내  
4.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5. 시민권 시험 및 시민권 선서식 개요  
6. 질문과 답변

\*사전등록 필수

### 성장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 엄마

- 일시: 12월 7, 14, 21일 (금)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
- 내용:  
1.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2. 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3. 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

\*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

### 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안내

- 일시: 12월 13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욕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 내용:  
1. 캐나다한인여성회 소개  
2. CVTP 란?  
3. CVTP 자원봉사자의 역할  
4. CVTP 자원봉사자의 요건  
5.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6. E-file 신청안내

\*사전등록 필수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http://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 KCWA 노스욕: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

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12월 10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2월 8일, 22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전담 팀원들의 열의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 역시 가을경제 동향 보고서(FES)발표와 정부 웹 사이트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편의점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른다는 시장 친화적 또는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기조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편의점 친화적인 정책들이 두루두루 발견되고 있으며 스몰비즈니스업계에 벌써부터 정책의 온기가 전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세번째 이슈인 복권 수수료 인상은 아직 정부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안이라 협회측은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했고 보좌관 역시 진지하게 받아 적으며 질문도 했다. 수십년간 복권 수수료(온라인)는 5%를 고수하고 있는데 물가인상에 임금 인상,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편의점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돼 이를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복권 수수료 인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15년 자유당 정권 내내 편의점을 옹아매는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매출 급감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2017년부터 협회는 이를 강도높이 요구해왔고 특히 작년에 관계 요리를 통해 OCSA와 공조하에 집중 거론했다.

이제 보수당으로 정권도 바뀌었고 비즈니스 친화적 경제 정책을 골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스몰비즈니스의 큰 몫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명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OLG를 통한 정부 수입의 큰 몫을 일선에서 담당해주고 있는 편의점의 복권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복권 매출 증대를 장려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정책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5%, 즉석 복권은 8%인데 즉석복권과 일치해서 8%로 맞춰달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편의점이 불법담배때문에 지난 15년 겪어왔던 시련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쏟아 내기도 했다. 지나친 행정 단속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령체크 함정단속의 불합리성 등 행정편의주의의 폐해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무부 면담은 정부 부처에서 먼저 협회와의 면담을 요청해 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추측컨데 더그포드 수상과 협회의 끈끈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의 한 가운데에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현 보수당 정책의 거의 모든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힘을 실어주는 단체라는 점에서도 협회는 자청해서 최우선적으로 만나고 싶은 단체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날 면담에는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 차동훈 전무, 전승원 사업실장, 김광일 홍보실장, 조합측에서는 심기호 부이사장 그리고 전체 면담 조율과 기획 파트너로 로비전문회사 그래스루츠(Grassroots)대표 피터 시먼씨가 함께 했다.

재무부를 대표해 대화 파트너로 이날 함께 했던 그레그 고든 보좌관은 약속했던 대로 재무부 OLG담당 직원에게 협회의 제안을 자세히 전하며 세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음이 확인됐다. 본부협회 임직원들은 보수당 새 정부와 협회가 공합이 앞으로 잘 맞을 것 같은 고무적인 전조라고 반겼다. ■

## 정부정책 지지 호흡맞추며 “복권 수수료 올려달라”

# 본부협회, 온주 재무부 면담



▲ 온주 재무부 본청이 소재하고 있는 다운타운의 프로스트 빌딩.

본부협회와 조합 임직원들이 지난 11월 22일 (목) 온주 재무부를 방문해 편의점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피델리 재무장관의 정책 보좌관 그레그 고든씨와 가진 대화에서 협회는 크게 세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불법담배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 복권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들 이슈는 15년만에 들어선 보수당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다루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라 편의점 업계의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불법담배는 인력을 배로 늘리고 퀵백과 유사하게 경찰당국

美 판매 중단 향첨가 전자담배, 캐나다에서...

## 쥬울(Juul)의 캐나다 상륙작전



▲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사진으로 뉴욕의 한 소매업소 전시장에 쥬울사 제품들이 늘어서 진열된 모습이다. 미성년자 베이핑 소비가 만연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과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회사는 더 이상 자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 시장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 확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미 캐나다 시장에서 이 회사 제품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에게는 먹히지만 캐나다에서는 먹히지 않느냐는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완곡한 말뜻을 풀이해보면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향첨가 제품을 대대적으로 진출시킬 요량인 것 같다.

캐나다는 연방 보건부가 2018년 5월에 '담배/베이핑 제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 베이핑 제품 전반에 관한 강력한 제재의 기본 틀이 수립됐다. 18세 미만에게는 일단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 주 정부리를 안기며 제품 판촉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쥬울의 수석 미디어 담당보좌역 마리스 듀렛씨는 “향이 가미된 액상이 일반 담배 대체용으로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성인 흡연자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시장은 캐나다도 강력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성인 시장을 주 타겟으로 공략하겠다는 의미다.

위의 연방법은 디저트, 마리화나, 당과류, 에너지드링크, 청량음료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있어 향 첨가 사실을 홍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게 어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향을 개발해서 추가되는 제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판촉을 금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과 필요한 조치 수립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 쥬울은 “캐나다 정부가 향 첨가 베이핑 제품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유혹이 되는 향첨가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캐나다 정부가 베이핑 제품에 대한 미성년자 노출은 엄격히 통제를 가하면서도 일반 담배 금연으로 이행하려는 성인흡연자에게는 베이핑 제품을 허용하는 입장이 균형잡힌 모습이라는 판단이다. 말은 매우 점잖고 캐나다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절제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 정부에서 베이핑 제품에 관한 발표를 했을 때도 쥬울은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정부를 꽤나 띄웠다.

여하튼 겉으로 표방하는 것만 주목하면 쥬울사 역시 미성년자 접근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 전혀 담배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접하는 것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쥬울은 지난 11월 13일 망고, 오이 등 향첨가 전자담배 제품 4종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쥬울사 전자담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약 9만여 개 이상의 소매업소를 통해 팔리

(20면에 계속)

이미 알려진대로 온타리오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Bill 36이 발효돼 베이퍼를 비롯한 모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처럼 가리고 판매되어야 하며 일반담배 취급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거의 유사한 관리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한달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전자담배 시장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는 미국 전자담배 회사 쥬울(Juul)의 전략을 캐나다통신(CP)이 최근 깊이있게 취재해 소개를 한 바 있다. 회사명이자 브랜드이기도 한 쥬울의 캐나다 진출에 대해 CP 기사 내용을 참고로 정리해본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전자담배 회사 쥬울이 망고, 오이 등 과일과 채소향이 가미된 4종의 향첨가 제품들을 캐나다 편의점과 베이프숍에 보급할 계획이다. 과일향 가미 제품들은 미성년자를 유혹하기 쉬어 미국에서는 사회적 여론때문에 자발적으로 판매 금지를 단행한 회사가 캐나다 시장을 넘보는 것이다. 쥬울 제품개발부의 한 관계자 말에 의하면 회사는 캐나다와 미국의 마켓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일향 첨가 제품과 미성년자 소비율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그렇고 캐나다는 그리 예민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이미 향가미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한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근본 이유는 이런 제품들이 청소년 접근을 유혹하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회사는 캐나다 시장의 전체 매력에서 이들 제한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두 시장을 한가지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첨가되는 모든 향들은 캐나다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떤 종류의 향이 미국 젊은이들

표에서 보듯 모든 소매업 신청자는 누구나 처음으로 신청하는 자들이므로 본인을 위해 허가증 발급을 위해 6,000달러, 영업하는 업소 인가를 위해 4,000달러로 총 10,000달러라는 적지않은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인이나 동업자 이외에도 마리화나를 취급하기 위한 종사자가 고용된다면 해당 종사자를 위해 별도로 750달러의 수수료를 들여 판매매니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업주 허가증이나 업소 인가증 그리고 매니저 허가증 모두 유효기간이 2년이다. 매 2년 마다 갱신되며 선택에 따라 4년 단위로 갱신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2년 갱신 수수료의 정확히 2배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마다 기호용 마리화나 취급 소매업소 운영 여부는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내년 1월 22일이 시한이다. 이날까지 지자체가 운영 거부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거부 후에 정책을 변경해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후에 운영을 거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 거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마감 지역은 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이 발표됐던 10월에 이미 거부 의사를 흘렸고 최근에는 옥빌, 킹 시티 등 외곽쪽에서 거부 대열에 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부한다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바로 이웃 허용하는 지자체로 넘어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켜볼 일이다. ■

<19면에 이어>

### 쥬울(Juul)의 캐나다 상륙작전

고 있다.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당 제품의 주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멘솔과 민트 맛이 나는 전자담배는 예외적으로 앞으로 계속 팔 것이라고 한다.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이런 저런 입장을 종합해보면 전자담배의 공룡인 쥬울은 일반담배 금연을 원하는 과도기의 성인 흡연자 시장을 키우고 미성년자 시장은 완전히 생각에서 지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국에서 스스로 안팔겠다고 한 향첨가 담배를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미국의 따카운 여론은 피했고 대체 시장으로 캐나다를 공략하겠다는 것 아닐까. 참고로 쥬울은 자국에서 자사 온라인을 통해 21세 이상의 연령자에게는 향첨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회사측이 이런 입장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의약청(FDA) 청장 스캇 고트리브씨는 향첨가 전자 담배 제품이 미성년자를 유혹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장의 입장은 한마디로 “성인한테 어필하는 향이나 맛이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라고 일축한다. ■

## 최소 1만 달러에 종업원 있으면 750달러 추가

# 마리화나 소매업 신청 수수료 발표



내년 4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내 마리화나 소매업소 영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소매업 영업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신청 수수료를 최근 발표했다. 금액이 만만치 않다. AGCO는 12월 17일부터 소매업 영업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잠정적 스케줄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조금 앞서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모두 3종이다. 이 하 표로 정리한다.

종류	최초 신청 (2년 유효)	2년 단위 갱신 신청	4년 단위 갱신 신청
소매판매 허가증 (Retail Operator Licence)	\$6,000	\$2,000	\$4,000
판매처 인가증 (Retail Store Authorization)	\$4,000	\$3,500	\$7,000
판매매니저 허가증 (Cannabis Retail Manager Licence)	\$750	\$500	\$1,000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감시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왔다. 또 남용의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야자유를 대량으로 얻기 위한 플랜테이션 운영을 위해 특정 영역의 밀림을 깎고리 갈아 없거나 불을 지르고 밀어버리는 행위가 빈번했다. 이는 불법으로 농부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다. 특정 밀림 지역이 황폐화되면 주변의 수질과 공기 오염이 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제조사들은 야자유를 둘러싸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며 업계를 지속적으로 살필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를 낳게 했다. 정부 또는 그린피스로부터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던 일정 기간 몬텔레즈의 주가는 꽤 하락하기도 했다.

### 그린피스 주장

그린피스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탕 서식지 25,000헥타르와 우림 7만 헥타르가 지난 2015에서 2017에 이르는 3년 사이에 파괴됐다. 몬텔레즈와 그밖의 당과류 제조회사를 위해 야자유를 공급하는 회사는 25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과 발주처인 몬텔레즈 등 대형회사들로 인해 엄청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몬텔레즈의 반론

회사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몬텔레즈는 지구촌 야자수 소비 전체의 불과 0.5%를 자사가 공급받을 뿐이며 야자유 공급과 관련한 숲의 황폐화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들에게도 자사의 이같은 환경보호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휴 관계를 앞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말에 야자유의 96%가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원칙에 부응한 공급사들을 통해 납품받은 야자유는 전체의 99%였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

## 오랑우탕 서식지 雨林지역 무분별 파괴 의혹

# 몬텔레즈, 그린피스의 주적(主敵)으로 곤욕



세계 최대의 전투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다국적 종합 당과류 회사인 몬텔레즈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몰아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오레오와 캐드베리 초콜릿 등을 제조하는 회사는 야자유(palm oil)를 다량으로 소비해야 하는데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료를 많이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원료 공급 과정에서 공급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오랑우탕의 터전을 파괴하고 마구잡이 삼림벌채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그린피스가 회사와 이들에게 원료를 납품하는 공급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격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몬텔레즈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접촉에서 자사가 공급사들로부터 받는 원료때문에 삼림 파괴를 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야자유의 공급처는 투명하게 추적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급사 12개사는 제휴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야자유 공급으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몬텔레즈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단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야자유 소비가 미치는 환경적,

##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 파티



올 한해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말 파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 오후 5시
- **장소** : Keystone Golf Club  
2402 Clifford Line, Peterborough ON  
TEL : 705-876-8061
- **연락처** : 피터보로지구협 회장 홍성훈  
TEL (705) 768 - 9500

### \*참고사항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사오며 순조로운 파티를 위해 참석자 명단을 12월 3일(월)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보로 지구협회장 **홍성훈**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윤문성 (519) 326 - 1832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 1- (888) 639-7868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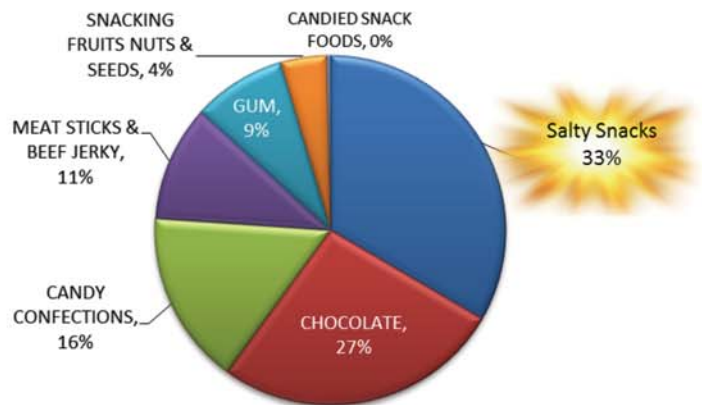
# 매출액 올리는 해결책은 Salty Snack Single Serve 총동구매 유도

왜 날개 봉지(Single Serve)에 집중해야 하는가?

Salty Snacks is the #1 Macro Snack

INCREMENTAL Trip	IMPULSE Purchase	IMMEDIATE Consumption
갑작스러운 허기 충족	즉흥적인 구매 결정	구매 즉시 소비되는 제품

2017 Total Category \$ Volume



Single Serve Growth Drivers

Talk to your Frito Lay Representative about a Display



✓ Leverage innovation to fuel trial and excitement



✓ 6ft from cash with a display or rack



✓ \$1.69 Everyday retail



Source: Single Serve Research (DIG, 2017)

Source: Nielsen National C&G, 52 Wks ending Dec 9, 2017